



◁영가를 모셔오는 시련의식(사진 위)과 수행으로 공양에 보답하는 식당작법(사진 아래)모습.

☞ **영산재와 어산**

영산재는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했던 도량을 오늘에 재현하여 부처님의 설법을 다시 듣고 제불보살에 공양하는 의식 법회이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함께 이고특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국가에서는 영산재를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해 보존과 전승을 지원하고 있다. 1973년 태고종 송암스님과 벽운스님이 보유자로 지정됐고, 87년에는 영산재가 무대종목에서 마당종목으로 바뀌어 작법부문에 일응스님, 도량장엄부문에 지광스님이 추가로 지정됐다. 그러나 보유자들은 지난 5월 일응스님을 마지막으로 모두 입적해, 현재는 태고종 공해·일운·기봉·송강 스님 등 4명의 전수교육보조자가 전승을 담당하고 있으며, 보유자 후보(준보유자)는 구해스님 뿐이다. 또 태고종 고산·원하·능화 스님과 조계종 동주·동희 스님 등 10여명이 전수조교 평가대상자로 지정되어 있다. 박봉영 기자

**도량 가득
 화엄세계**



홍색가사가 아닌 과색가사를 입은 스님이 바라춤을 춘다. 법고춤을 춘다. 멈춘 듯 이어지는 법우스님의 법고춤에 청중의 호흡도 끊어지고, 법고를 두드리는 춤사위에 청중은 박수로 화답한다. 9월 28일 오전 9시.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 영산재가 재현되는 현장이다.

불사로 어수선하던 대웅전 앞마당이 오늘날만큼은 각종 장엄으로 한껏 멋을 냈다. 대웅전 앞마당은 이미 영산재에 동참하기 위해 자리를 잡은 천 여명의 신도들로 가득하다. 여러 부처님과 이를 호위하는 신중이 그려진 거대한 괘불과 여러 불·보살의 명호를 적은 당번, 부처님께 바치는 오색 지화(紙花), 죽은 자가 쓸 저승 노갯돈인 대령 지전(紙錢)으로 경내는 이미 아단법석(野壇法席)이다.

법고소리가 영산재의 시작을 알린다. 시련(侍禪) 의식, 대중은 연(儼), 가마를 들고 나무대성인로왕보살의 인도로 절 입구로 나선다. 오늘의 어장(魚丈)인 동주, 동희 스님을 위시하여 영산재를 재현할 스님들과 이를 따르는 대중의 행렬이 길게 늘어섰다. 절 입구에서는 계승을 제정하고 바라춤과 나비춤으로 불·보살과 응호(應呼) 중·영가를 모신다.

이어 영혼에게 간단한 법식(法食)을 베풀어 대접하는 대령(對靈)과 불단에 나가 법문을 듣기 전에 영취(靈취) 세속에서 탐진치(貪瞋癡) 삼독으로 더럽혀진 업장을 깨끗이 씻는 관욕(灌浴)이 이어진다. 병풍으로 가린 관육소 안에서 영혼을 씻기는 동안, 병풍 밖에서는 진언에 따라 결수(結手, 손가락을 여러 모양으로 구부러 깨달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형식)를 진행한다.

괘불을 야외로 모셔오는 괘불이운(佛移運)과 함께, 신도들의 영단(靈壇)이 이어진다. 옛날 보살들은 일생에 괘불탱을 3번만 보면 극락왕생한다 해서 몇 백리 길을 걸었다. 오늘 참배하려는 신도의 행렬도 그만큼이나 길다. 두 손을 꼭게 모은 보살의 괘불탱을 바라보는 표정이 자못 장엄해 보인다.

다음은 영산재에만 있는 식당작법(食堂作法), 재공양의 다른 절차와 달리 철저히 수행을 통해 대중의 공양에 보답하는 마음과 대중구제의 원을 담은 '수행의례'다. 공양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시자(施者, 공양을 베푸는 자)·수자(受者, 공양을 받는 자)·시물(施物, 공양품)의 공덕과 불·법·승을 생각하고, 배고픔에 고통받는 아귀중생에게까지 공양을 베풀어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다. 식당작법은 범종, 법고, 목어, 운판의 사물(四物)과 법배, 호소리, 짓소리,

타주춤 등의 작법이 어우러져, 영산재에서 가장 화려한 의식으로 꼽힌다.

오후의식은 봉선사 조실 월운스님의 법문으로 시작했다. 월운스님은 "종교에 의식이 없는 것은 군인에게 구멍이 없는 것과 같다"며 "오늘 의식을 준비해 온 스님들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는 말로 영산재 재현의 축하를 대신했다.

오후에는 5시간동안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고 영가 왕생을 기원하는 불공이 진행됐다. 연황계, 서찬계, 합장계, 복청계 등 부처님의 공덕을 찬양하는 소리와 천수바라, 삼귀, 내림계바라 등의 춤사위는 보는 이에게 영산재의 의미를 되새기게 만든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법배 장단은 태풍 때미로 인해 희생된 이들의 영혼을 달래는 마음으로 변해 영산재 도량을 가득 메웠다.

이어 영가에게 마지막 가는 길에 법식을 베풀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시식(施食)과 의식에 사용된 각종 장엄구와 영가 위패를 사르는 소대(燒臺)의식으로 영산재는 막을 내렸다.

오늘 영산재는 하루 동안 계속된 의식만큼이나 영산재를 둘러싼 조계종과 태고종의 관계에 관심이 집중됐다. 조-태 갈등의 골을 영산재가 메우느냐, 더 깊이 패느냐하는 언론의 상반된 예측이 분분했기 때문이다.

향후 문체에 대한 예측은 차치하고, 오늘의 행사만을 본다면 갈등의 골을 메우는 모습이다. 동희스님이 바깥소리 가운데 회심곡을 부를 때 태고종 구해스님이 북을 치며, 조계종과 태고종 스님이 영산재로 하나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구해스님은 "조계종 스님들이지만, 같은 스승에게서 영산재를 사사한 제자들이다"라며 "종단간의 문제보다는 잊혀져가는 불교 문화를

전승하고 보존하겠다는 움직임을 축하하기 위해 그 자리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시작하며 조계종 문화부장 탁연스님이 "지금까지 영산재를 잘 지켜주신 태고종과 스님들께 감사하다"고 건넨 인사말도 같은 맥락이다.

행사를 마친 동주스님은 "단절돼 가는 영산재를 살린다는 뜻으로 행사를 끝까지 치렀다"며 "종단과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영산재의 가치를 살리는 길"이라고 감회를 밝혔다.

영산재를 끝까지 지켜 온 이화(62) 보살은 "불자로서 불교의식에도 관심이 많아, 안산에서 영산재를 보러왔다"며 "오늘 행사가 여법하게 진행돼 기쁘지만, 의식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이해가 어려웠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글=유진기 기자·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영산재 첫 재현한 날
대웅전 앞마당 1천여 신도들로 가득
대중구제의 원 담은 식당작법 하이лай트
"조계종 동희스님 회심곡 부를때
태고종 구해스님 북, 조-태화합 모습 보여"



◁법고춤을 추는 법우스님.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든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기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기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대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나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기 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행나무 등 각기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호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